



2017년 11월 5일(제848호) 연중 제3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 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군종과 제자들에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행위를 들어 보이시며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권위는 인정해 주시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 사이에 오는 괴리에 대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높은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니 경쟁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낙오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선 자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한 채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총과 그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법과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맡았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높이 올려준 것이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높은 자리와 가르치는 권위가 자기들 것인 양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

낮이지는 마음

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필리 2,6-7)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라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주님께서서는 많은 것을 주시고, 그 많은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높은 곳에서 받은 것을 낮은 곳에서 나누기 바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스스로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스스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운데 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선배님과 사모님이라는 말이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상인(그레고리오) 신부
신신대(해군 직진시령부)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말라 1,14ㄴ-2,2ㄴ,8-10
회 답 송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제 2 독 시 1테살 2,7ㄴ-9.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복 음 마태 23,1-12
영 성 제 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진리를 살다

‘아빠’라는 낱말은 어린아이가 젖을 땔 무렵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로 아마도 전 세계 공통어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종알대는 말마디입니다. 아이들은 음성 모음이 들어간 ‘엄마’라는 말보다 양성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빠’라는 단어를 더 빨리, 쉽게 배운다고 합니다. 이 호칭이 주는 의미는 아마도 첫 아이를 낳고 기르다 어느 날 처음으로 아이로부터 들어본 아빠에게는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감동은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진한 감동으로 전해져 아버지로서의 부성을 심어 주어 자식을 위한 바침의 삶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친밀감과 순박함, 그리고 그윽한 부자간의 결속감은 좀체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성경에서 이런 낱말로 감히 하느님을 부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느님을 당신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하느님을 예수님처럼 신뢰를 가지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로마 8,15 ; 갈라 4,6)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라는 말씀을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친구라는 단어를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 15,15) 이는 가치의 전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인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기를 어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아마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그런가봅니다. 그러나

영성재 예식

서양 사람들의 사고에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기도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린이미사에서 아이들은 즐겨 ‘우리 친구 예수님’ 하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부르는 데도 어색함이 없으며 듣기에도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느낌마저 줍니다. 성인들의 사고에서는 뭔가 거북하게 여겨지는데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단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른들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친구 사이가 순수하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주위를 생각하고 형편을 생각하고 앞길을 생각하는 등 생각이 많으면 불가능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단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 아버지를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사 전례 안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전 초대문이 요구하는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께 대한 친밀함과 순수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닐까합니다. 아울러 이 초대문은 아빠가 가지는 아이 같은 믿음으로 한없이 크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임을 깨닫게 합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숫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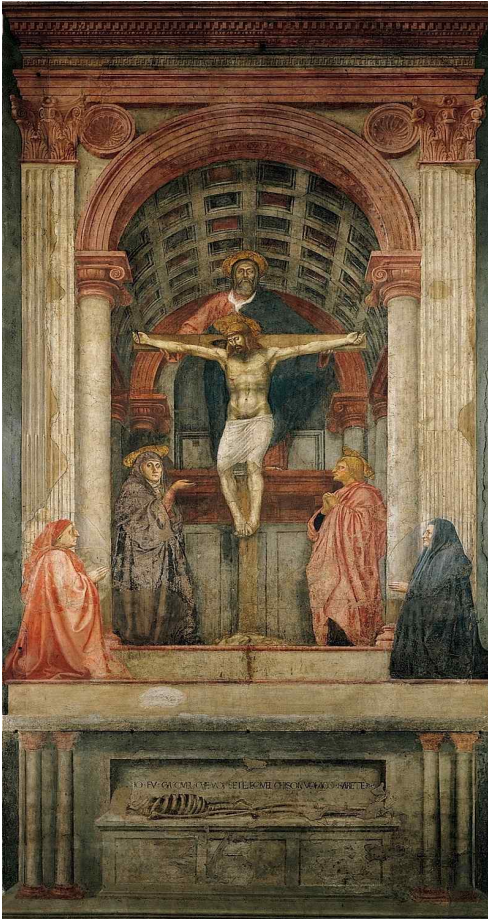
날아라.
날아올라.

우리네
작고 많은
바람을
하늘계신
나의 임께
전해다오.



상화이야기

성 삼위일체



마사치오(1401-1428)
1425년 작
프레스코 667 X 317 cm
스티마리아 노벨리, 이탈리아 피렌체



마사치오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초기 르네상스 작가로, 아직 원근법이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의 시대에 마치 매직아이 같은 정교한 원근법을 실험한 본 작품을 남겼다.

본 성당의 주 출입구가 아니라, 옆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마주 하게 되는 이 작품은 마치 실제 소성당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공간의 착각을 일으킨다. 마치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부분 입구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는 하느님이 들고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의 흰 비둘기(마치 하느님의 옷깃처럼 보인다)가 성령을 상징해 성 삼위일체를 그린 그림이다. 그 아래의 성모님은 손을 들어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시며, 다른 편에는 사도 요한이 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은, 제작된 시기를 고려해본다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가시관 상처에서 흘러내려 온 피와, 옆구리 상처의 피가 응고된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은혜(별리사넷)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1주일: 재주해군 이창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해군교육사(해교사) 성당 사목방문 및 신입사제 방문
 때: 11월 5일(주일)
- 회의
 때·곳: 11월 7일(화), 안양 아론의 집 신관 강당
 국장회의 11:00, 참사회의 13:00, 사제평의회의 14:30

◆ 교구장 신입사제 방문

- 해성대(5공비단) 성당
 때: 11월 5일(주일)
- 불무리(26사단) 성당
 때: 11월 8일(주일)

◆ 시제 총회 및 연수

때: 11월 7일(화) - 10일(금)
 곳: 안양, 아론의 집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 11월 10일(금)
 곳: 서울현충원 현충관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목요일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김범휴 빈첸시오 010-4521-8194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